

HANARO

ETF Monthly

January. 2026

01. HANARO Insight
어차피 원자력은 HANARO
02. 1월 추천상품
HANARO 원자력iSelect ETF
03. HANARO ETF 수익률 TOP5
04. HANARO ETF League Table

Contents

01. HANARO Insight

어차피 원자력은 HANARO

- 원자력 섹터 주요 이슈와 전망
- 편입종목 주요 이슈

02. 1월 추천상품

HANARO 원자력iSelect ETF

03. HANARO ETF 수익률 TOP5

04. HANARO ETF League Table

HANARO 원자력iSelect ETF 우수한 성과 기록

Summary

- 2025년 한국 증시를 달군 원자력, 상승 주역으로 우뚝
- 2025 원자력 섹터 상승을 이끈 주요 이슈 체크
- 2026년에도 원자력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 HANARO 원자력iSelect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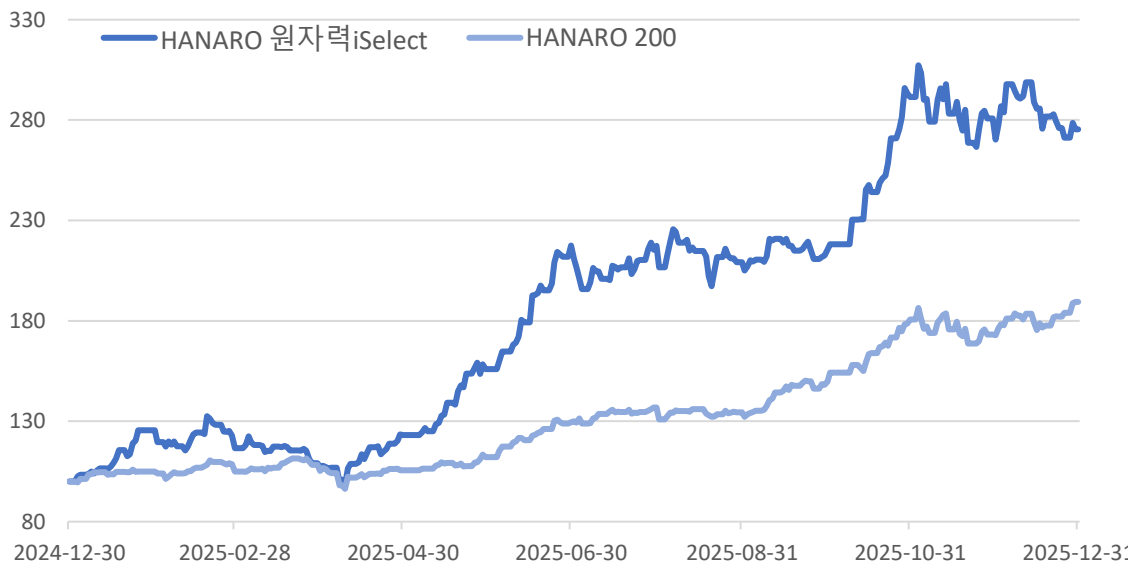
HANARO 원자력 iSelect

우수한 성과 기록

2025년 상반기 국내 증시를 이끈 키워드는 단연 조/방/원 섹터였습니다. 이 가운데 원자력은 글로벌 AI전력확보 경쟁을 시작으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원전 부활 정책 등 대외적인 호재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와 이를 통해 입증된 한국 원전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대내적인 호재가 맞물리며 2025년 한국시장 상승을 이끈 주도 업종이 되었습니다.

원자력 섹터 ETF 또한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HANARO 원자력iSelect ETF의 수익률은 2025년 연말 기준(25.12.30) 181.17%로 KOSPI200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2026년 1월 HANARO Monthly는 2025년 원자력 섹터의 상승을 주도한 주요 요인들을 점검하고, 향후 주목해야 할 이슈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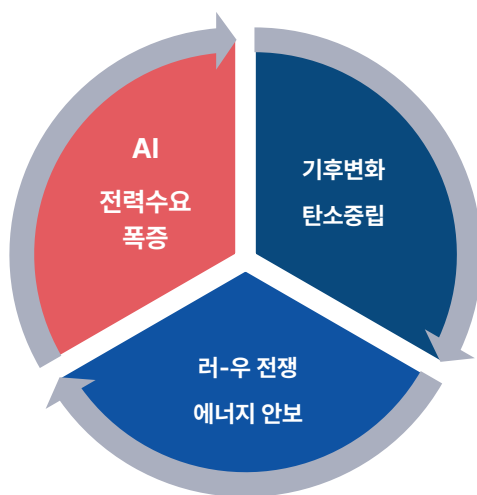
출처: FnGuide(2024.12.30 ~ 2025.12.30)
2024.12.30일 종가를 100으로 환산하여 누적수익률 계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력 섹터 주요 이슈와 전망

글로벌 원자력 구조적 성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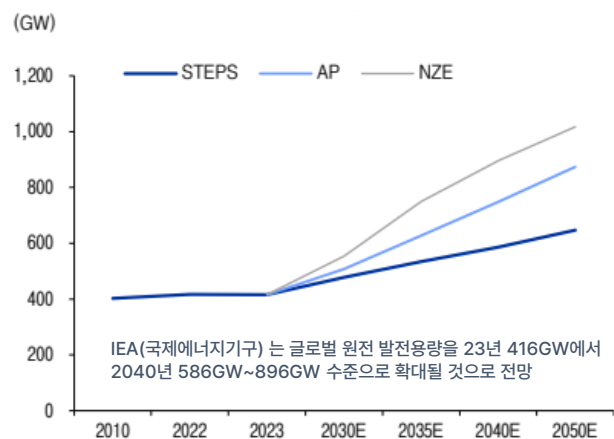
2025년은 원자력 발전에 있어 AI 전력수요 폭증과 에너지 안보, 탈탄소라는 다양한 시대적 요구가 맞물리며 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러-우 전쟁이후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유럽의 인식 제고와 AI발전이라는 복병이 맞물리며 안정적인 기저 전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00GW로 4배 확대하는 목표를 세운 것은 이와 같은 원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자력 발전의 구조적 성장 요인



출처: NH-Amundi자산운용

글로벌 원자력 발전용량 전망 (IEA)



- STEPS(Stated Policies Scenario. 이미 시행중 또는 확정된 정책만 반영)
- AP(Announced Pledges Scenario. 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목표 기준)
- NZE(Net Zero Emissions by 2050 Scenari.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달성시)

출처: IEA(World Energy Outlook), LS투자증권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이슈는 **AI산업의 압도적인 성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원전의 결합입니다.** AI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전력 소모량이 한계치에 도달하자, AI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과 각국 정부는 24시간 내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해법으로 원자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의 원자력 확보 경쟁은 작년 한해 동안 전례 없는 원전 투자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구글은 케이로스파워와 협력한 SMR 구축계획을 밝혔으며, 아마존은 엑스에너지 지분인수를 통해 2039년까지 SMR 5GW 운영계획을 밝혔습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빅테크 기업도 미국내 원자력과 SMR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빅테크의 원자력, SMR 투자계획

구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iros Power와 '35년까지 500MW 규모 전력구매 - Elementl Power에의 자금 조달과 미국 내 3곳의 첨단 원자력 프로젝트 확장 계획 발표. - '35년까지 미국 내 10GW 이상의 원자력 배치 목표
아마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엑스에너지 지분 인수로 '39년까지 미국 내 SMR 5GW 이상 운영 계획. '30년까지 Xe-100 모듈 4기 도입 목표로 최대 12기까지 확장 예정 - 버지니아 North Anna 원전 인근 300MW급 SMR 프로젝트 개발 진행 예정
메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대부터 공급을 목표로 최대 4GW 신규 원전 추가 -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클린턴 원전 부지에 SMR 개발을 추진 검토중

엔비디아 젠슨황 ' 원전 없인 AI못한다'

대만 AI포럼서 "정부, 원전에 투자해야"
TV 인터뷰서도 "가장 큰 걸림돌은 에너지 공급"



출처: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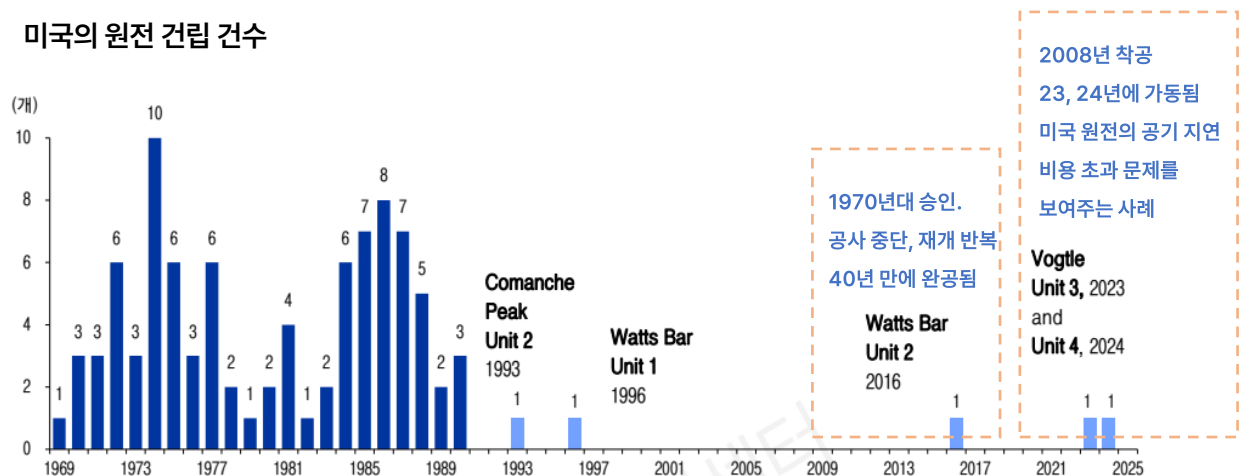
원자력 섹터 주요 이슈와 전망

한국 원자력의 레벨업

원전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에 한국의 원자력 생태계가 글로벌 원전 공급망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지난 수십년간 사실상 탈원전 상태에 있어, 독자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원전 건립은 건설기간만 5~10년에 달하고, 공정관리, 기자재조달, 안전 규제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사업 성패가 좌우되는 매우 복잡한 사업입니다. 원전 시공에 차질이 빚게 되면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 유럽에서는 원전의 건설 지연 사태가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상당한 지연으로 급격한 비용 상승의 문제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원전 건립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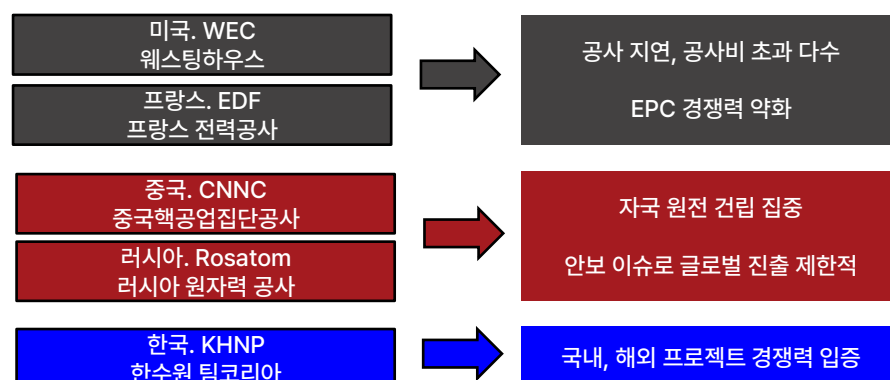
출처: LS증권, EIA

현재 글로벌 대형 원전 EPC 및 운영 경험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소수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프랑스는 최근 프로젝트에서 공기 지연 및 비용 초과로 수행 능력이 의심되며,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 시장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신고리, 신월성 원전 건설과 UAE 바라카 수출 경험을 통해 공급망, 기술, 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건설한 대형 원전은 건설기간이 가장 짧고 비용이 낮아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원자력 산업기반은 매우 취약하여, 설계/공급망/인력을 갖춘 한국의 참여가 필수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원전 공급망의 중심으로 진출할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2026년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레벨업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 경쟁 구도



출처: LS증권, NH-Amundi 자산운용

편입 종목 전망

주요 편입종목 포인트

두산에너지빌리티는 2026년, 글로벌 원전 시장 재편과 미국의 원전 부흥(MANUGA) 정책 및 확대되는 전력수요에 힘입어 실적 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① 글로벌 원전시장 재편 & 미국의 원전 부흥(MANUGA) 정책

미국 시장에서는 대형 원전 및 SMR(소형모듈원자로) 프로젝트에 원자로 등 핵심 주기기 공급 계약이 본격화되며 매출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투자사 및 독점 공급사로 참여 중인 뉴스케일파워 SMR의 최초 상업화 관련 수주가 가시권에 들어오며 차세대 원전 시장의 주요 공급자로서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추진 중인 북미, 유럽 등에 대형 원전 프로젝트에도 주기기 공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을 고려해보면, SMR + 대형원전 두가지 분야 모두에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강점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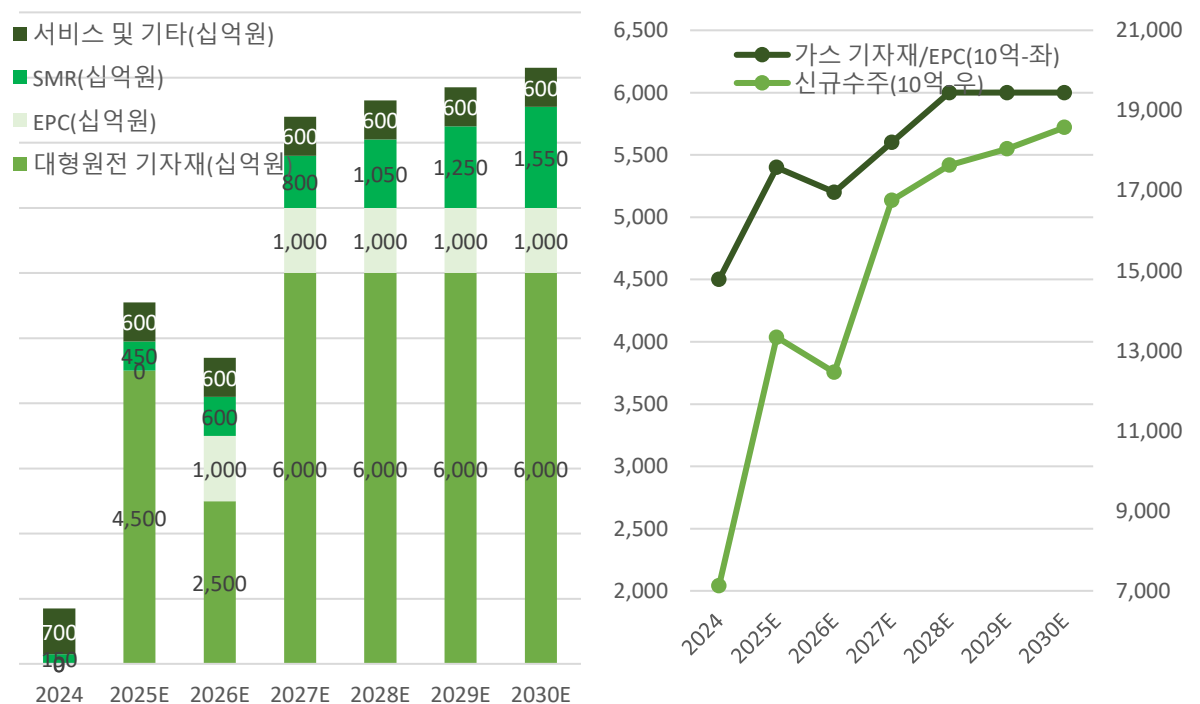
② 터빈사업의 성공적 수주

한편 북미 시데이터센터향 가스터빈 수주로 향후 수년간 상당한 호황이 예상되는 가스터빈 사업에도 글로벌 사업자로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습니다. 2026년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원전 주기기 공급과 더불어 한국형 가스터빈의 상업 공급을 확대하며 글로벌 원자력 및 전력설비를 대표하는 종목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③ One-stop Solution(소재 - 제작 - 출하로 이어지는 독립적 생태계)

두산에너지빌리티의 또 다른 강점으로 소재부터 기기제작 및 출하까지 한 공장에서 수행 가능한 유일한 업체라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공정의 배타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지빌리티의 원스탑 솔루션을 바탕으로 원자로 + 증기발생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로서 글로벌 원자력 핵심 밸류체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지빌리티 원자력 수주 전망치 & 가스기자재 수주 및 신규 수주 전망치(~2030)



출처: 키움증권, NH-Amundi 자산운용

편입 종목 전망

주요 편입종목 포인트

국내 원자력 생태계 확장과 해외 진출의 리더십은 한국전력(한수원)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 생태계를 주도하는 한국전력(015760)의 투자 매력도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한국전력

① 실적개선 및 주주환원 확대

2026년 한국전력은 코로나 시기 겪었던 대규모 적자 늪에서 벗어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며,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 등 에너지 원가 안정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2025년 약 8조원의 영업이익에서 2026년 약 14조~18조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전력은 지속적인 실적 개선을 통해 코로나 시기 대규모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로의 복귀가 가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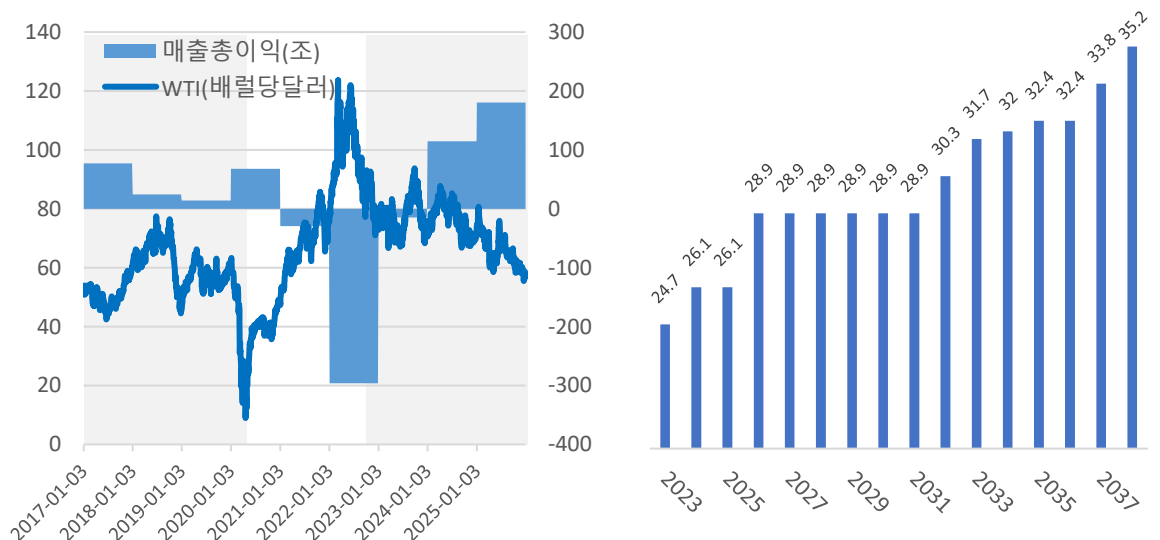
한편 한국전력은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대규모 송배전망 투자 필요성 확대에 따라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론이 제기되고 있어, 추가적인 실적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② 원자력 신규 투자 포인트 부각

한국전력은 원자력 모멘텀은 국내 원전운동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38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201.7 Twh에서 248.3 Twh로 확대하고(CAGR: 2.67%), 신규 SMR건설(0.7GW) 및 APR 1400 기준 대형원전 2기(2.8GW)를 설치함으로써 전력 수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6~30년에도 새울 3,4호기와 신한울 3,4호 및 신규원전 2기 추가 증설을 통해 31~38년까지 5.6GW의 추가 전력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Team Korea 수주가 가능한 체코, UAE, 사우디 등지에서 다수의 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 대형 원전사업의 경우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사업 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가 추이(WTI)와 한국전력 연간 매출총이익 & 원자력 발전 (GW) 생산량 계획 및 전망



출처: Bloomberg, FRED,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HANARO 원자력iSelect(434730)

어차피 원자력은 HANARO

투자포인트

AI 발달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유럽/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원전 수요 확대 중

저탄소 에너지원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 발전의 장점 부각

2050년에는 미국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 이상으로 확대

편입종목

상위 10 종목			
NO	종목명	비중(%)	상세
1	두산에너지리티	25.77	발전설비·원전·SMR 중심의 에너지 인프라 전문 기업
2	HD현대일렉트릭	21.16	중저압 전력기기, 스마트그리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전기 기업
3	한국전력	17.03	국내 전력 독점 공급자로 송배전과 전력계통 운영 담당
4	효성중공업	10.29	변압기·차단기 등 전력기기 및 수소충전소 관련 사업 전개
5	LS ELECTRIC	8.61	전력기기·자동화 솔루션 기반 산업용 전력설비 전문업체
6	현대건설	6.03	국내외 플랜트·인프라·주택사업을 아우르는 종합 건설사
7	한전기술	1.87	원자력·발전 플랜트 설계·감리 수행하는 한전 계열 전문 기술사
8	산일전기	1.85	변압기·개폐기 등 수배전반 제조 및 산업현장 설비 납품 기업
9	일진전기	1.55	다양한 전압의 전선과 중전기기를 생산 및 전력 솔루션 공급
10	한전KPS	1.20	발전소 설비 정비 전문 기업으로 국내외 발전소 유지보수 수행

기준일 26.01.05, 한국펀드파트너스

상기 포트폴리오의 종목과 비중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

수익률(% , 세전)					
1M	3M	6M	1Y	YTD	설정이후
0.42%	37.35%	52.50%	192.55%	8.77%	365.09%

* 기준일 26.01.05, 신한아이타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정보

종목명	HANARO 원자력iSelect(434730)				
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위험)				
상장일	2022.06.28				
상품유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비교지수	iSelect 원자력 지수(Price Return)				
설정단위	1CU 당 50,000좌				
수탁/사무	하나은행, 한국펀드파트너스				
운용	지정참가	수탁	사무	총보수	
0.36%	0.05%	0.02%	0.02%	0.45%	

* ETF 거래 수수료,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1.05

ETF명	투자포인트
HANARO Fn K-반도체 3M 수익률(세전) +47.98%	종목코드: 395270 규모: 8,705억 상장일: 2021-0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 한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ETF • HBM 1위 SK하이닉스, 레거시 반도체 강자 삼성전자, 삼성전기 편입
HANARO 전력설비투자 3M 수익률(세전) +44.62%	종목코드: 491820 규모: 847억 상장일: 2024-0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적인 전력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설비 투자의 전성기 도래 • 국내 변압기 3사 + 전력망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
HANARO 원자력iSelect 3M 수익률(세전) +37.35%	종목코드: 434730 규모: 5,503억 상장일: 2022-0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발달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유럽/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원전 수요 확대 • 저탄소 에너지원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 발전의 장점 부각
HANARO CAPEX설비투자iSelect 3M 수익률(세전) +28.38%	종목코드: 454320 규모: 948억 상장일: 2024-0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원자력, 풍력, 공장, 건축 등 기초설비투자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ETF • HD현대일렉트릭, LS, HD현대건설기계 등 주요 설비투자 관련기업 편입
HANARO 바이오코리아 액티브 3M 수익률(세전) +26.01%	종목코드: 498050 규모: 173억 상장일: 2024-0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바이오 및 헬스케어 종목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바이오텍, CDMO, 바이오시밀러 기업 편입

■ 자료: NH-Amundi자산운용, 신한아이타스, (레버리지, 인버스 ETF 제외)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HANARO ETF League Table

기준일: 2026.01.05

구분	ETF 명칭	순자산 (억원)	기간 수익률			
			1M	3M	6M	1Y
시장 대표	HANARO 200	5,567	11.92%	31.89%	58.06%	104.22%
	HANARO KRX300	118	11.16%	30.47%	55.71%	97.78%
	HANARO 코스닥150	180	1.81%	12.28%	27.33%	36.01%
	HANARO 200TR	1,106	11.93%	31.95%	58.16%	104.16%
	HANARO MSCI Korea TR	680	13.62%	34.97%	65.23%	107.43%
	HANARO 200 TOP10	62	5.56%	23.66%	44.22%	62.65%
	HANARO 미국S&P500	148	0.02%	6.47%	12.85%	13.20%
채권	HANARO 32-10 국고채액티브	262	-0.08%	-2.88%	-3.10%	-1.73%
	HANARO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873	-0.06%	-2.03%	-1.89%	-0.67%
	HANARO 머니마켓액티브	501	0.27%	0.67%	1.36%	3.01%
	HANARO 26-12 은행채(AA+이상)액티브	617	0.27%	0.27%	0.27%	0.27%
	HANARO 27-06 회사채(AA-이상)액티브	1,028	0.28%	0.15%	0.33%	0.33%
	HANARO KOFR금리액티브(합성)	120	0.22%	0.67%	1.30%	2.74%
테마	HANARO 농업융복합산업	59	-3.97%	6.75%	6.06%	24.32%
	HANARO e커머스	567	0.07%	2.46%	0.04%	33.03%
	HANARO K고배당	242	-3.26%	9.91%	12.06%	47.56%
	HANARO 글로벌렉서리S&P(합성)	174	0.02%	6.47%	12.85%	13.20%
	HANARO Fn5G산업	121	5.27%	29.84%	55.02%	82.71%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	378	-0.87%	8.69%	11.62%	19.89%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137	10.79%	29.00%	53.22%	93.76%
	HANARO Fn전기&수소차	152	-4.14%	24.88%	31.60%	47.12%
	HANARO Fn친환경에너지	64	-4.72%	5.20%	9.57%	23.88%
	HANARO Fn K-반도체	8,705	19.48%	47.98%	103.36%	150.70%
	HANARO Fn K-게임	114	-2.52%	-7.57%	-15.50%	-7.22%
	HANARO Fn K-POP&미디어	779	9.64%	-2.17%	-3.43%	29.24%
	HANARO 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CE(합성)	64	5.85%	15.93%	27.85%	24.53%
	HANARO Fn K-메타버스MZ	60	-0.89%	6.20%	11.10%	28.23%
	HANARO Fn골프테마	52	0.63%	12.63%	12.38%	81.51%
	HANARO 글로벌워터MSCI(합성)	92	-2.42%	1.93%	3.59%	12.06%
	HANARO 원자력iSelect	5,504	0.40%	37.35%	52.50%	192.55%
	HANARO Fn K-푸드	191	-1.93%	-6.35%	-7.68%	10.56%
	HANARO Fn조선해운	1,109	-2.70%	-0.82%	30.23%	87.46%
	HANARO CAPEX설비투자iSelect	949	0.75%	28.38%	50.34%	140.03%
	HANARO 글로벌생성형AI액티브	453	-2.98%	1.96%	26.73%	33.77%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705	4.63%	16.20%	72.34%	138.46%
	HANARO 반도체핵심공정주도주	107	11.48%	11.04%	43.66%	52.48%
	HANARO K-뷰티	544	-0.33%	-10.50%	-6.61%	32.94%
	HANARO 전력설비투자	848	2.46%	44.62%	77.67%	156.41%
	HANARO 코리아밸류업	403	12.41%	31.10%	57.13%	101.40%
	HANARO 바이오코리아액티브	173	2.35%	26.01%	45.10%	59.46%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	263	-0.38%	4.55%	32.68%	64.12%
	HANARO 유럽방산	97	5.28%	-4.70%	7.83%	7.83%
	HANARO 증권고배당TOP3플러스	378	3.72%	-0.42%	-0.42%	-0.42%

■ 자료: NH-Amundi자산운용, 신한아йти라스, 세전수익률 기준,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제외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NH-Amundi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0036호 (2026.01.08~2027.01.07)
- 본 자료에 기재된 투자 인사이트 및 추천 상품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므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 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